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4. 5.(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공간정보 제도과	담당자	• 과장 유승경, 사무관 정은정, 주무관 이슬기 • ☎ (044) 201-3480, 3481
보도일시		2022년 4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지적 경계점 표지, ‘친환경 소재’ 로 바뀐다

- 6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...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(말목)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(22.4.6) 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(말뚝)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,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.
 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,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*하였다.
 - *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4.6)
 -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.

- 본 개정을 통해 경계점 표지에 사용된 15톤 분량의 적색 페인트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경계점 표지 1개당 5.5%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페인트 사용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을 제거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< 경계점 표지(말목) 사진자료 >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정은정 사무관, 이슬기 주무관(☎ 044-201-34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